



宗訓

- 1. 崇祖 精神의 高揚
- 2. 宗族 和睦의 勵行
-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天金氏宗報

제65호

2010. 10. 8 (금)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형엽/ 편집인: 김은한/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02)400-2501~2502/FAX: (02)400-2505

전임 고 김종식 회장 1주년 추모식 봉행

먼저 고인의 친지들 단성이 스며있는 묘비의 제막식이 있었고, 春熙 상임 부회장의 집례로 강신·참신례에 이어 行燁 회장의 절절이 고인을 사모하는 추모사 그리고 초헌·아헌·종헌례가 있었고, 특히 많은 유족 친지들이 애뜻한 정에 못이겨 5~6인씩 나뉘어 헌작을 하였다. 그리고 집례의 예필 인사말을 끝으로 제례를 모두 마치었다. 참사자 모두는 마을로 내려와서 식사를 마치고 각기 귀로에 올랐다.



2010/07/10 13:33



2010/07/10 13:24

◆ 인사말씀 ◆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 버님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 종친여러분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도리인데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종친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 하는 길은 미력하나마 열심히 종사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종사를 위해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한번 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자 원필 배상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二十一期 定期總會開催公告

會則第十二條一項에 依據 二〇一〇年 第二十一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二〇一〇年 十月 八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行燁

- 一. 日時: 二〇一〇年 十一月 五日(金) 六時
- 二. 場所: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동원재
▼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 〇二一四〇〇一二五〇一二
- 三. 參席範圍
(一) 中央宗親會全任員과 代議員
- 四. 議案
(가) 業務報告
(나) 會則改正의 件
(다) 第二十一期 收入支出 決算報告
(라) 第二十二期 豫算案 審議
(마) 其他 討議事項
- 五. 다음날 6일은 始祖 秋享祭日입니다.

부산 종친회 동원재 나들이

부산 종친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 종친회원 40여명이 폭우속에 나들이를 감행. 시조님 묘소를 참배하였습니다.

난생처음 전라도 주암호부근 여행이며 시조님 묘소가 그 곳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부친께서 항상 말씀하셨지만, 한번도 찾아보지 못하던 중 이번 종친모임을 계기로 처음으로 시조부근 묘소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주암면 어귀에 성황신 김 총장군님 유적이라는 안내판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짙 하였습니다.

시조님의 높으신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읽을 수 있었고, 반경 200리를 통치 하셨다고 합니다.

신위, 위의 우상으로, 성황신, 살아계신 신주님으로 주변 신도들이 모셨다하니 감동을 받았습니다.

국가애국심과 공신으로 전국 3곳의 국가 유적지, 보유가문의 자긍심, 지정 운영비까지 지급되고 있다니, 새삼 선조님의 애국심에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계속된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종친님들은 아주 흡족하신 마음으로 무사히 귀가하시고, 다음 기회에는 경기도 광주시 양경공 - 중시조님에 대한 참배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젊은



세대가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나 원로 임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을 위하여 이번 행사에 모든 준비를 하신 김 동목회장과 김 보연총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향후는 30-40대에서 중앙 및 지역 순천김씨 종친회를 사이버 등으로 활성화 하여 시조님-중시조님-김 총서장군님-효녀각등 선조님들의 유적지를 참배하고 선조님들의

숭고하신 정신을 계승 발전하여 명문 가문의 전통을 대대손손 이어가고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시조님 41대 손 김 수희

부산종친회 신임원 개선

- ▶ 회 장 : 김 동 목 (011-843-9987)
- ▶ 수석부회장 : 김 성 국 (011-849-1329)
- ▶ 부 회 장 : 김 연 수 (010-3151-4475)
- ▶ 부 회 장 : 김 해 수 (010-4855-7907)
- ▶ 총 무 : 김 보 연 (010-8648-5382)

동 정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지난 7월28일 천안시(을) 선거구에서 실시한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김호연(金昊淵) 종친께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습니다

김호연(본관은 순천 김씨 40세손)은 누구인가 ?

1. 학 력

1973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에 서강대학교 무역학과(현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외교안보 전공),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에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논문 <한국적 리더십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2007년에는 몽골국립농업대학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2. 주요 경력

(주)빙그레 상무이사(1986), (주)한양유통 대표이사 사장

(1986-92), (주)빙그레 대표이사 회장(1992-2008)을 지냈다. 대한민국 광복회 자문위원(2000-02),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협회 부회장(2003-07),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협회 부회장(2003-08) 등을 역임했다. 주한 몽골공화국 명예영사, 제15대 충청남도 새마을회장, 한나라당 천안(을) 당협위원장, 서강대학교 총동문회장,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이사회 이사, (재)아단문고 이사장, (재)매현 윤봉길 의사 장학재단 이사, 유관순열사기념사업협회 부회장이다. 한국해비타트 이사 겸 친선대사이며, 천안-아산 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재)충청장학문화재단 이사, 충청향우회 부총재,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자문위원장이다.

3. 상 훈

2001년 제28회 상공의 날, 은탑산업훈장, 2004년 제36회 한국의 경영자상(한국능률협회), 2004년 프랑스 국가공로훈장, 2005년 몽골 정부 수여 북극성 훈장, 제2회 한국 리더십대상(리더십학회), 보훈문화상(기념사업부문, 국가보훈처), 2006년 제5회 식품안전의 날, 국민훈장 동백장, 2008년 한국마케팅학회에서 한국마케팅 CEO대상을 받았다.

원통사 가는 길

주말이면 아들과 산행을 한다. 말이 산행이지 집에서부터 왕복 두 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산책에 가깝다. 목적지도 거의 똑같다. 도봉산 원통사(圓通寺) 아래 헛터라는 곳이다. 때로는 원통사나 우이암, 또는 북한산 진달래능선 쪽에도 가지만 헛터 주변을 맴도는 수준이다. 그렇게 다닌 지 한 3년쯤 되었다. '헛터'가 생긴 뒤부터다.

걷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아직 건강한 몸으로 건강을 다지기 위해 걷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건강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많이 걷고 많이 감사한 마음을 가진 가장 손쉬운 건강비결이다. 건강 유지는 신체 단련만이 아닌 마음과 정신도 함께 추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생명운동이고 삶의 율동이다.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것은 본능적 생명운동의 기본이고 젊은이나 노인이 걷는 것은 신체 유지 및 생명 연장의 필수조건이다.

길은 곧 도(道)다. 도는 마땅히 행해야 할 길(도리)이다. 공자는 '아침에 도(道)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다. 공자의 도는 인(仁)의 사상을 골자로 한 유도(儒道)다. 불교에는 견성(見性)으로 진아(眞我)를 찾아 안심입명(安心立命)과 해탈에 이르는 불도(佛道)가 있고, 기독교에는 박애(博愛)와 부활 영생의 길을 향해 가야 하는 십자가의 도(十字架道)가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라고 말한 예수는 33세의 짧은 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으나 공생에 3년은 끊임없이 걸으면서 건강을 유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틱낫한 스님의 글에 이런 구절이 있다. "그냥 대지 위를 천천히 걸어라.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니라 아름다운 지구별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라. 다음엔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냥 존재하라.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 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그대 발걸음마다 바람이 일고 그대 발걸음마다 한 송이 꽃이 핀다. 나는 느낀다.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한다. 세상은 광야라고 한다. 인생은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가는 외로운 나그네길이다. 그래서 최후의 목표를 향해 고난의 길, 경건의 길을 가야 하면서도 현재의 삶, 이 순간의 삶 속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의미있게 느끼고 즐기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가장 중요한 날은 오늘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이다."

이 순간을 의미없이 보내 버리면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이 순간의 삶을 무의미하게 흘려 보내면 내 인생은 무가치한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하루하루는 내 인생의 역정을 엮어 꿰는 구슬이고 나의 희로애락은 내 인생의 세월을 엮어가는 끈이므로 이왕이면 아름다운 무지개빛으로 수놓

아지기를 소망해야 할 일이다.

고난과 불행도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생로병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불행과 죽음마저도 은혜로 여겨 감사히 받아들여야 마땅한 도리다. 생명은 내게 주어진 고맙고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이다.

원통사 가는 길은 방학동이나 우이동 평지에서부터 2킬로미터쯤 되는 산길이다. 수십 군데의 오르내리는 길과 꺾이고 휘돌아가는 아기자기한 길이 많아 지루하지 않게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오를 수 있는 길이다. 원통사 바로 밑 길은 몸을 숙이고 손으로 붙잡고 올라가야 하는 가파른 바윗길도 있다. 나는 이 길은 오를 때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는 찬송가 구절을 흥얼거리곤 한다.

원통사의 원통(圓通)이란 '절대 진리는 모든 것에 두루 통한다'는 뜻으로 관음보살의 덕을 칭송하여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원통사는 대한불교조계종직할 전통 사찰로서 신라 경문왕 31년(864)에 도선국사가 창건하여 1천1백여 년의 역사를 지닌 고찰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몇 번의 중창을 거쳤고 조선 순조 10년(1810)에는 청화대사가 중창을 한 후 나라에 큰 경사가 있어 '나라와 산천의 은혜를 갚았다' 하여 보은사(報恩寺)라 부르기도 했다. 경내에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기도했던 석굴이 있고 약사전(藥師殿) 아래 거북바위에는 태조가 기도를 마치던 날 천상의 상공(정승)이 되어 옥황상제를 배알하는 꿈을 꾸었다 하여 새겼다는 '相公岩'(상공암)이라는 글씨가 있다.

원통사는 예로부터 좌우에 수락산과 삼각산을 거느리고 한강을 바라보는 도봉산의 최고 길지에 자리잡은 수행 기도처로 알려져 왔으며 역대 술한 선지식(善知識)과 제현들이 거쳐간 관음 기도 도량이다. 무학대사를 비롯해 근래에는 만공, 동산, 춘성 등 선지식이 지견(智見)을 얻었고 조선 영조대 영의정을 지냈던 조현명, 서명균, 정이검 등이 국사를 논하며 심신을 닦았던 곳으로 당대 유학자들 사이에 명소로 유명했다.

원통사 바로 위에 거대하게 솟아 위용을 자랑하는 우이암(牛耳岩)은 멀리서 보면 소귀를 닮았으나, 관음보살이 부처님을 향해 기도하는 형상이어서 원래는 '관음봉' 또는 '사모봉'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 주변에 호랑이, 코끼리, 두꺼비, 코뿔소, 학 등 각종 동물의 형상을 한 바위들이 관음봉(우이암)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천혜의 관음성지이며 오늘날도 관음보살의 원력(願力)과 가피(加被)가 이곳을 찾는 모든 이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

원통사는 서울 도봉구 도봉1동 546번지이고 해발 542미터에 위치해 있다.

우리는 산행의 도착지인 헛터의 의자에 앉지 않고 헛터 조금 못미처 아담하게 솟아 있는 바위봉에 앉아 한식경쯤 쉰다. 초콜릿 한 조각과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며 맑은 바람과 하늘, 바위의 기운을 마신다. 원통사에서 열불과 목탁소리라도 낭랑히 들려오는 날이면 마음을 맑히는 서늘한 바람 한 자락 안고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천천히 내려온다.

김종현

불효자의 기도

김종현



부모님 잠이 드신 고향산천 삼삼쿠나
꿈결에도 가고파서 목이 맨 하늘인데
눈뜨면 다른 세월이 고향길을 막누나

노자없어 못가는가 금의(錦衣)없어 못가는가
부모님 유택 앞에 면목없어 못가는가
고향길 부끄러운길 불효자가 우는길

석삼년 못뵈은길 마음잡초 우거지고
부모님 산소길도 적막강산 됐으려니
지은죄 너무 우거져 어찌 헤쳐 갈거나

인고의 멍에를 맨 형극의 이랑마다
해진옷 조식(粗食)으로 병고마저 반추하며
이똥난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부모님

부모님 누린 향년 제나이 넘어서고
덤으로 사는 세월 밟고 또 비옵나니
불효자 속죄의 기도 영생복락 하소서.

돈이 뭐길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우선이 돈이라고들 한다. 의식주(衣食住)가 돈이 있어야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것이 돈이지만 요즘처럼 돈 때문에 고통과 실망을 주는 때도 드물었던 것 같다.

특히 정치, 경제계를 보면 거의가 관습병에 걸린 듯 보인다. 그렇게 국민들이 역사적인 기대 속에 정권교체를 했던 개혁 세력 열린우리당은 대통령까지 부정한 돈에 연루(連累)되어 퇴임 후 자신의 목숨을 절벽에서 던져버린 어처구니없는 경험까지 했다. 그 밖에도 여러 분야에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나 승진을 위해 은밀히 거래하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보도되었다. 그러나 발각되지 않고 묻혀버린 사건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일 것이다.

이런 사례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신용사회라고는 하지만 찾아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줄곧 장기 집권한 보수당인 자민당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진보세력인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몰아줘서 정권교체를 이루었으나 1년도 못가서 하도 야마유키오(九島山由紀夫) 총리와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이치로(小澤一郎)가 정치와 돈이란 수렁에 빠져 물러나고 말았다.

원래 돈이란 쓰기에 따라 귀하고 사용에 편리하기 위해 주지(周知)하는 대로 농경시대 물물교환(物物交換)에서 은(銀)이나 금(金)을 주고 거래하다가 주화(鑄貨)를 제작, 간편하게 거래했고, 점차 개량되어 금속화폐 대용으로 지폐(紙幣)가 발행되어 편리하게 사용되었다. 각 나라마다 모양과 규격이 다르지만 가볍고 거액이라도 운반하기가 용의하여 부정도 쉽게 저질러지게 된 듯하다.

그러나 돈이 사용에 따라 기쁨과 감격을 주는 일도 적지 않다. 어느 시골 동사무소에는 해마다 화단에 돈뭉치를 갖다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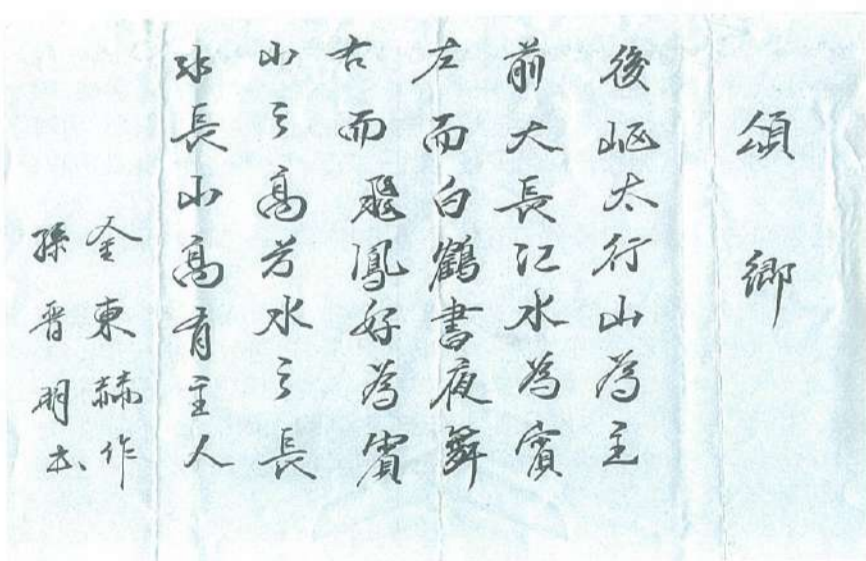
고 이름과 모습까지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전화로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달라고 말을 전하고 사라진다는 보도를 보면 마음이 뭉클하다.

예수가 직접 물질의 가치에 대해 언급한 것을 마태복음 4장 3절~4절에서 보면 예수가 매우 시장했을 때 시험하는 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더러 떡이 되라고 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의 대답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삶에 가치를 말씀한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가들은 한 때 예수의 말에 반발하여 배고픈 자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다. 예수는 이들의 주장을 도외시(度外視)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서 20장1절~16절에 보면 포도원에서 일꾼을 쓰는데 오전에 불러 와서 일한 사람과 오후에 눈에 띄어 불러다 쓴 사람 모두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오전·오후 일한 사람, 심지어 한 시간만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오전부터 종일 일한 사람은 불공평한 임금지불에 항의했다. 주인께서는 당신과 임금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니 불평 말고 받아가라고 하면서 나중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은 주인의 임의대로라고 했다. 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생활에 책임을 진 노사관계를 비유로 말씀한 것이다.

망국적인 배금사상이나 금권만능주의에서 탈피해서 정직해져야 선진국 국민이 될 것이며, 남북통일의 성업도 이루게 될 것으로 믿는다.

고문 김봉배



뒤에는 험준한 태항산을
主人으로 하니
앞에는 길고 큰 강물이
손님이 되었다도다.
왼편에는 백학이 주야로
춤을 추고
오른편에는 나는 봉이
손님을 좋게 하더라.
산은 높고 물은 길게 흐르니
물은 길고 산은 높은데
主人이 있음을.

人事動靜

- ▶ 상임고문 榮熙
- ▶ 고 문 相容
- ▶ 고 문 學元

訃 告

一無軒炳鎰 전임 고문께서 지난 8월 15일 향연 9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結 婚

김우영 부회장의 차남 동명 군이 이선영 양과 2010년 10월 9일 부산 누리엔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며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기원합니다.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전화:(02)400-2501~2502 / FAX:(02)400-2505

전통혼례 (傳統婚禮)

陽 剛	하늘, 해, 낮, 剛 強한 것, 높은 곳, 밝은 것, 큰 것, 남자, 군왕, 군자, 신한 것, 길한 것, 복된 것, 홀수, 능동적 삶, 동쪽, 붉은 것
陰 柔	땅, 달, 밤, 유순한 것, 낮은 곳, 어두운 것, 작은 것, 여자, 신하, 소인, 약한 것, 흉한 것, 재앙, 짝수, 수동적인 죽음, 서쪽, 푸른 것
拜 禮	생존자 및 길한 일에 男子는 양수인 왼손을 오른손 위에 포개고, 女子는 음수인 오른손을 왼손에 포개고 배례한다. 죽은 자나 흉사에는 위와 반대로 함
納 采	<p>옛날에는 六禮(納采, 納吉, 問名, 納幣, 請期, 親迎)라는 복잡한 儀式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四柱, 柱單, 單子라고 하는 新郎이 생년월일시와 혼주의 예서를 적어서 新婦집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남자가 親迎을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하는 것이니 剛柔의 속성에 따른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四柱와 禮書를 합한 四星 봉투에 넣고 봉해서 이것을 쪼갠 싸릿대에 끼우고 양끝을 청실과 홍실로 묶은 다음 홍보에 싸서 新婦집으로 보낸다. 색깔에도 陰陽이 있는데 靑色은 陰이고, 紅色은 陽이기 때문에 음양의 화합을 의미하고 마지막 홍보에 싸는 것은 新郎이 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2. 婚禮에서 사성 다음의 의식이 涓吉이다. 연결은 혼례의 날짜와 혼주의 禮書를 신부집에 작성하여 신랑 집으로 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혼인날짜를 가린다하여 택일이라고도 한다. 또 신랑집에서 사주를 받고 신부집에서 혼인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許書라고도 한다. 新郎쪽에서 陽으로 한번 움직임이 있자(四星) 이어 新婦집에서 陰으로 이에 응수하는 것이 바로 涓吉이다. 婚姻일자와 禮書를 봉투에 넣고 靑縹에 싸서 보내는 것은 靑色의 陰으로 新婦의 속성을 맞추려고 한 것이다.
納 幣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納幣는 신랑집에서 납폐서와 신부의 예단을 신부집으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에는 이것을 함과 물목이라 한다. 陰의 움직임에 대한(涓吉) 陽의 응수인 것이다. 함에는 예단 두벌, 폐물 그리고 婚書紙(예장지)를 넣는다. 여기에도 陰陽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예단은 청·홍하의 채단을 보내는데 청색과 홍색의 비단은 음과 양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청색과 홍색이 어울려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옷을 지어 입게 함으로써 婚禮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陰陽의 속성을 따르고자 함이다. 2. 납폐의식 다음 儀式은 신부측의 問安紙이다. 문안지는 신부가 媿家の 食口들에게 미리보내는 便紙이다. 역시 陽의 움직임에 대한 陰의 응수이다.
大 禮	<p>大禮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거행하는 의식이다. 이것 역시 신랑인 양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여 신부에 앞서 하는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례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尊雁禮이다. 존안례는 기러기를 올리는 것으로 두 사람이 婚姻하여 기러기와 같이 화목하고 다산하여 서로 존중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이다. 기러기는 물새이고 물은 음이요, 기러기는 陽의 상징인 새로서 이 역시 음양의 조화를 의미한다. 신랑이 존안례를 치룬 뒤 木雁은 신부의 어머니가 받아서 신부에게 준다. 이때 기러기 코에 매어 놓았던 홍실을 풀어서 신부 속고름에 매는데 이는 음양의 조화를 취하기 위함이다. 존안례 역시 신랑만이 하는데 남자가 강하고 적극적인 양의 속성을 지닌 신랑이 나서서 대표로 하는 것이다. 2. 新郎 新婦 맞절이다. 이때 신랑은 양의 자리인 동쪽에 서고 신부는 음의 자리인 서쪽에 선다. 그리고 서로 맞절함에 있어서 신랑은 음의 속성에 맞게 한번하고 신부는 음의 속성에 맞게 두 번한다. 요즘 혼례에 있어서는 신랑뿐만 아니라 신부도 한번 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혼례는 主禮를 모시고 거행하게 된다. 이때 주례는 제일 높은 자리 북단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서로 신랑은 양의 자리인 동쪽에 신부는 음의 자리인 서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盥酒禮는 두 사람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신랑과 신부가 표주박의 술을 마시는 의식이다. 이때 표주박에는 청실과 홍실을 묶어 장식하는데 이 역시 음양의 결합을 상징한다. 대례의 마지막 의식은 合巹인데 신랑신부가 신방에 드는 것으로 남녀 음양의 결합을 실행하는 것이다.

金總將軍과 順天의 城隍祠(2)

- 교수들의 글을 읽고 -

順天의 城隍祠에 관해서도 많은 대학교수들 간에 구구하게 거론되고 있으니 公의 후손으로서 어찌 관심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순천의 성황사의 내력이라고나 할까 나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성황신앙은 그 명칭부터 지역수호를 감지하게 하는 신앙으로 중국의 六朝시대부터 있어 왔고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때에 번성하였다고 한다. 이 신앙은 그 지역수호에 공이 많은 실존했던 인물을 신격화하여 성황신으로 받드는 신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전반부터 번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高麗史’에 실린 글로 顯宗의 生父인 安宗(郁)이 죽기전에 유언으로 “사후(死後)에 縣의 성황당 남쪽 귀용동에 장사지내 데...”라고 한 기록이 있다하고 그 시기가 서기 996년이라 하니 그 이전부터 이미 성황신앙이 행해졌음을 알수있게 한다.

그러면 순천의 성황사는 어느 시기에 설치되고 운영되었을까. 어느 사서(史書)에 보면 나주, 목성, 의성등에서는 모 · 모장군을 성황신으로 받들었다고 하였으니 이 모두 고려전기의 일일것이며 순천에서도 그 무렵에는 성황사가 설치되고 운영되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느 교수님의 논문을 보면 “고려의 忠定王대(1348~1351)에 公의 후손인 惟精과 承霍가 권세가 있어 公을 성황신으로 하여 성황사를 설치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 어찌 수긍이 되는 일인가.

그때로 말하면 유교의 영향으로 성황신앙이 사양길에 들어서는데 그 설치시기부터 문제가 있고 또한 麗山君(휘 惟精)께서는 당시 하위관직에 계셨고 襄景公(휘 承霍)께서는 1347年生으로 당시 유아기이셨거늘 어찌 권세문운하는 말이 되겠는가. 그리고 어느 교수님은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지도 않고 위 교수의 論旨를 그대로 인용부연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닌가.

麗 · 順지방은 해안지대로 여지승람에 실린 趙枚의 시문(詩文)에 “순천지방은 해적들의 요충지였다”하였고 南秀文은 記文에서 “해적들의 침탈로 순천지방이 쑥대밭이 되었었다” 운운하였으니 이는 고려말기의 일이지만 그보다 기백년전에야 어떠하였겠는가. 이와같은 지역이니 그 곳에서는 지역수호를 위한 성황신앙에 관심도 많았을 것이며 나라의 시책으로 성황사를 설치하게 되니 일찌감치 설치하게 되었을 것이다. 늦어도 서기 1000년대 초반에는 순천의 성황사가 설치되었을 것이며 기이 여수의 安官祠에 지역 수호신격으로 모시던 公을 성황신으로 받들게 하였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때로 말하면 고려의 靖宗 · 文宗대로서 사직단(社稷壇)의 축조, 대묘(大廟)의 건립, 그리고 宣德鎭성을 쌓고 성황당을 설치하는 등 기복(祈福)행사도 성하였으며, 얼마 후 金富軾이 묘청의 난을 토벌하려 갈때는 전국의 성황사에서 제향하게하는 등 성황신앙이 성행하였었는데 어찌 300년후인 1300년 중반에 그것도 일개가문의 권세로 순천의 성황사를 설치했다하니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러면 당초에 순천의 어느곳에 성황사를 설치하였을까. 위 교수님들은 순천의 성황사가 당초부터 진례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연이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다. 성황사의 위치는 관리나 祭儀등 문제로 治所에서 근거리에 있어야 함은 물론 청정하고 조용한 곳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면에서 합당한 곳이 치소에서 10리 거리인 城頭山이 있다. 이 산이 후일 성황당산이라 불리게 되었고 (그 후에 봉화산으로 개칭하게 된다) 그 근방을 당골(堂谷)이라고 한다니 그 옛날 이곳에 城隍堂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순천부 옛 지도에 보면 치소에서 멀지 않은 동쪽산에 건물 한 채가 그려져 그 옆에 ‘성황당’이라고 써어있으니 이는 성황당산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또한 順天大 崔인선교수의 증언을 빌면 그산 정상부에 옛 기와조각과 토기 파편등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고 아직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확인은 못하지만 옛 건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보아도 순천의 성황사는 당초에 오늘날의 봉화산인 순천시 생목동 산 15번지 산에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지승람이나 강남악부에서 확인되는 進禮山의 성황사는 어찌보아야 하겠는가. 그 사연은 다음의 烽火台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국사대전에 보면 조선조 世宗(1418~1450) 2년에 우리나라 국방상 요충지인 慶興, 江界, 義州, 東萊, 順天등 5개처에 봉수대를 설치하라는 勅이 내려졌다. 그 봉수대역시 治所에서 가까워야 했고 높은지대에 설치해야 했으니 순천에서는 성황사가 있는 성황당산이 가장 적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봉화대가 있는 곳에서는 산신제 등 일체의 제사 행위는 엄금하게 되어 있었다. 이는 봉화 이외의 화기나 연기가 봉화대 근처에서 발생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하니 봉수대 설치하는 국가차원의 勅이니 성황당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여수지방도 순천도호부의 관할지역이었고 애당초 지역 수호신격으로 公을 받들던 진례산 안관사 자리로 성황사를 옮기는 것이 마땅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순천의 성황사는 조선조 世宗대에 여수의 진례산으로 이전되어 조선조 후기까지 유지되고 제의도 이어졌던 것이다. 充植의 ‘新增昇平誌’에 보면 ‘壬戌新增’이라 하였으니 英祖 19年 壬戌(1742)에 성황사를 새로이 증축하고 公의 영정도 다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니 오늘날 동원재 영당에 모셔진 영정인 것이다.

그러나 어찌할꼬! 哲宗 13년(1862)과 高宗 5년(1868) 연이은 書院 철폐령으로 진례산의 성황사도 훼손되게 된다. 그리하여 순천부에서는 朴蘭鳳장군과 李舜臣장군을 合祀하여 公과 함께 三位를 받드는 성황사를 당초의 위치인 봉화산(봉화대 설치 후 성황당산이 봉화산으로 바뀌었고 봉화대 또한 시대의 변천으로 소용이 없게 됨)으로 이전되어 추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방증하는 事緣을 적어보면 첫째 公의 후손인 性海공이 사당철사 시 1914년에 봉화산 사당에서 公의 영정을 동원재로 이안해 왔고 둘째 성해공의 족손인 임실의 東英공의 말씀으로 公의 영정이안시 다른 영정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 땅에 묻었다고 전해주었었다. 그리고 2005년 4월 본회 相容부회장과 生이 순천시 문화원 부원장이신 陳仁浩 선생의 안내로 봉화산 사당 유적지를 답사차 갔을 때 그 마을 노인정의 차모옹의 말씀을 들으니 “그 곳을 당골이라 하고 당초에는 산 위쪽에 사당이 있었는데 후일 아래쪽 운동놀이터로 옮겼다 하고 先代 어른들의 말씀이 ‘왜병들이 사당으로 마구 들어가 영정들을 칼로 마구 찌르는 등 행패가 심했었다’고 들었으며 그 사당을 흔히들 삼왕당(三隍堂?)이라고 하였다”고 전해주었었다. 이와 같이 순천의 성황사는 다시 당초의 위치로 이전되어 근 50년 운영되다 庚戌國恥후 3년 왜정치하에서 철사되게 되어 公의 영정이 1914년 가을 동원재로 이안됨으로써 순천의 성황사도 고려시대 400년 조선시대 500년 900년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상 시조부군과 순천의 성황사에 관하여 증언부언의 이야기였지만 위 두 고문헌의 公에 관한 기록 중 前半部의 내용은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10년 6월 1일부터 ~ 2010년 9월 30일까지

부회장

- 1. 김경렬 2010. 8. 10 경기도 고양시
- 2. 김우영 2010. 9. 16 부산광역시 동구
- 3. 김경렬 2010. 9. 27 경기도 고양시

고문

- 1. 김대영 2010. 7. 28 경상북도 문경시
- 2. 김봉배 2010. 8. 30 부산광역시 금정구

운영위원

- 1. 김상남 2010. 9. 8 전라남도 해남군

이사

- 1. 김동준 2010. 7. 1 충청남도 천안시
- 2. 김상우 2010. 7. 1 경기도 용인시
- 3. 김상석 2010. 7. 10 경기도 광주시
- 4. 김안천 2010. 8. 17 광주광역시 동구
- 5. 김정시 2010. 9. 7 대구광역시 북구
- 6. 김광원 2010. 9. 29 전라남도 담양군

대의원

- 1. 김해수 2010. 7. 2 부산광역시 남구
- 2. 김상률 2010. 7.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회원

- 1. 김수환 2010. 6. 3 충청남도 보령시
- 2. 김재석 2010. 6. 28 경기도 수원시
- 3. 김부원 2010. 6. 28 경기도 수원시

- 4. 김주락 2010. 6. 28 울산광역시 중구
- 5. 김승걸 2010. 6. 28 경상북도 안동시
- 6. 김욱재 2010. 6.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 7. 김동원 2010. 6. 29 서울특별시 도봉구
- 8. 김용태 2010. 6. 29 광주광역시 북구
- 9. 김왕희 2010. 6. 29 울산광역시 남구
- 10. 김기수 2010. 6. 30 경기도 부천시
- 11. 김동근 2010. 6. 30 경기도 시흥시
- 12. 김수효 2010. 6. 30 서울시 금천구
- 13. 김춘희 2010. 6. 29 경상남도 사천시
- 14. 김창희 2010. 6. 30 경상북도 구미시
- 15. 김보연 2010. 6. 30 부산광역시 남구
- 16. 김태연 2010. 7. 1 서울특별시 성북구
- 17. 김용환 2010. 7. 1 전라북도 전주시
- 18. 김희온 2010. 7. 5 대전광역시 중구
- 19. 김동수 2010. 7. 5 경상북도 구미시
- 20. 김영관 2010. 7. 6 충청남도 괴산군
- 21. 김동연 2010. 7. 7 경기도 고양시
- 22. 김규식 2010. 7. 7 충청남도 연기군
- 23. 김좌섭 2010. 7. 7 경상북도 봉화군
- 24. 김재환 2010. 7. 8 강원도 원주시
- 25. 김원석 2010. 7. 8 광주광역시 북구
- 26. 김채연 2010. 7. 8 경기도 안양시
- 27. 김완수 2010. 7. 9 서울특별시 은평구
- 28. 김순원 2010. 7. 9 경기도 안양시
- 29. 김윤배 2010. 7. 8 전라남도 해남군
- 30. 김동수 2010. 7. 9 경상북도 안동시
- 31. 김동식 2010. 7. 13 서울특별시 광진구

- 33. 김중근 2010. 7.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 34. 김동수 2010. 7. 26 대구광역시 동구
- 35. 김정희 2010. 7. 27 서울특별시 강서구
- 36. 김성열 2010. 7.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 37. 김기준 2010. 7. 23 전라북도 진안군
- 38. 김공남 2010. 7. 27 광주광역시 광산구
- 39. 김동한 2010. 7. 27 경기도 용인시
- 40. 김장희 2010. 7. 27 전라북도 전주시
- 41. 김수영 2010. 7. 28 충청북도 청주시
- 42. 김해연 2010. 7.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 43. 김정렬 2010. 7.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 44. 김진석 2010. 8. 3 전라남도 해남군
- 45. 김동경 2010. 8. 16 인천광역시 동구
- 46. 김기석 2010. 8. 30 전라남도 담양읍
- 47. 김석환 2010. 9. 10 전라북도 순창군
- 48. 김영순 2010. 9. 20 강원도 철원군
- 49. 김지홍 2010. 9. 28 경기도 안양시

무명인

- 1. 2010. 7. 5 농협/이천관고지점
- 2. 2010. 7. 5 농협/임실군지점
- 3. 2010. 7. 26 울산신정수협은행
- 4. 2010. 7. 27 몽천농협
- 5. 2010. 7. 30 농협/신둔농협
- 6. 2010. 8. 2 신한은행/신월중앙
- 7. 2010. 8. 2 새마을/갈산삼
- 8. 2010. 8. 10 군자농업협동조합
- 9. 2010. 9. 15 기업은행/영주지점

원고 투고를 환영합니다

참고 사항

- 1. 祖上님에 대한 行蹟과 考證資料에 관한 건
 - 2. 宗派 및 宗會의 現況·活動에 관한 內容
 - 3. 宗員의 教養을 위한 內容
 - 4. 모든 宗員들의 專門分野別 參考할 만한 글
 - 5. 孝行, 善行 등 우리 문종을 빛내고 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 宗親
 - 6. 전국 각처에 산재해 있는 집성촌 소개
 - 7. 그밖의 詩·紀行文·隨筆
- 우리 종보는 우리 종친 모두의 광장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향료 대비

전서공파	100,000
양경공파	100,000
부호군파	100,000
김영배님	30,000

<http://www.schkim.co.kr>

6면에서 계속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몇몇분 교수님들의 글에서는 공을 견훤의 인가별감으로 굳히고 주관적으로 서술하여 여·순천 지방의 백성보다 견훤을 위해 일생을 바치신 모양새가 되었고 순천의 성황사에 관해서도 억측의 서술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학계에서 그대로 인용되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 날조된 역사가 될것을 생각하니 이 어찌 걱정스러운 일이라 아니하겠는가.

공께서 여·순지방에 끼치신 공과 덕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 수 없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고려후기부터 조선조에

들면서 다른 지방의 성황사는 음사라하여 철사되어 갔지만 공을 받드는 순천의 성황사는 昇州鄕土誌에 보면 隆熙壬戌(壬子?) 金釋秦 군수시 祭祀廢址?라 하였으니 고려와 조선조 내내 유지되고 제의도 봉행되었으며 그 곳 향유도 영웅같이 사셨다고 칭송하였고 오늘날의 고로들도 흠모하는 공이시니 미루어서 알만하지 않은가. 우리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여 세간에서 구구하게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2010년 4월 38세손 明在 삼가씀.

비즈니스 신대륙을 찾아서 한화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 땅 위에 더 이상 신대륙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개척해야 할 신사업은 있습니다
한화는 태양광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